

# KIMA<sup>+</sup>plus 07

MARCH 2016

Magazine of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SPECIAL  
바다는 알고있다 응답하라 1988

+ NOW  
미리 만나는 KIMA WEEK 2016

+ EDUCATION  
영산대 수목양묘보트 도입 \_ 새로운 교양의 길을 열다

KIMA + Plus

MARCH, 2016 | Vol. 07

KIMA 2016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WEEK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부산국제보트쇼 주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BEXCO 부산 MBC kotra  
후원 대한요트협회 KSPOT 한국관광공사 BPAV 부산항만공사 MBC  
특별후원 스타지동차(주) (주)공든블루

www.kimaweek.org

# 29 < 71

대한민국의 미래  
지구(地球)가 아니라 해구(海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71%를 차지하는 곳 -  
생물의 80%가 살고 있는 곳 -  
산소의 75%를 만들고 이산화탄소의 50%를 흡수하는 곳 -  
태양열의 80%를 흡수해 온도를 유지해 주는 열저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구(地球)가 아닌 해구(海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수입의 99.7%도 바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행복, 더 큰 미래 -  
해양수산부가 바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해양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선6기  
글로벌해양수도 부산에서 바다의 힘으로  
희망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부산에게 바다란,



바다에서 발견한  
무한한 가능성들로 신해양경제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www.kimaweek.org

# KIMA 2016

KOREA INTERNATIONAL MARINE LEISURE WEEK

# WEEK

##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 일정 2016년 10월 5일(수)~11일(화) / 7일간
- 장소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일원, BEXCO
- 주제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 Grand Opening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00 ~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국제컨퍼런스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5:00 ~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제2회 KIMA Awards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14:00 ~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

- 일시 2016년 10월 5일(수)
- 장소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 해양레저 체험페스티벌-만원의 행복

- 일정 2016년 10월 ~ 소진시
- 장소 부산 광안리, 해운대 일대

### 어린이 해양레저 직업체험 페스티벌

- 일정 2016년 4월부터 연중
- 장소 해운대 센텀시티 키자니아 부산점

### 해양레저 다큐멘터리

- 주제 해양레저도시의 축제와 마린 산업
- 방송일정 2016년 3/4분기 중(예정)

###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제목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시즌4)
- 방송일시 2016년 6월 중순 ~ 8월 중순, 총 10편

### 연계행사

#### 제3회 부산국제보트쇼

- 일시 2016년 3월 10일(목) ~ 13일(일)
- 장소 해운대 BEXCO 제1전시장, 수영만오토경기장

#### 광안리 달빛수영 페스티벌

- 일시 2016년 7월중
- 장소 광안리 해수욕장

#### 제6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 9월 4일(일)
- 장소 수영강 APEC 나루공원

**KIMA WEEK 2016** 04  
春, 바다로부터

**KIMA+ Special 01** 06  
2016 부산국제보트쇼  
개요 및 스타요트 아나토미

**KIMA+ Special 01** 14  
2016 부산국제보트쇼  
제대로 즐기기 알짜 TIP

**KIMA+ Special 01** 22  
2016 부산국제보트쇼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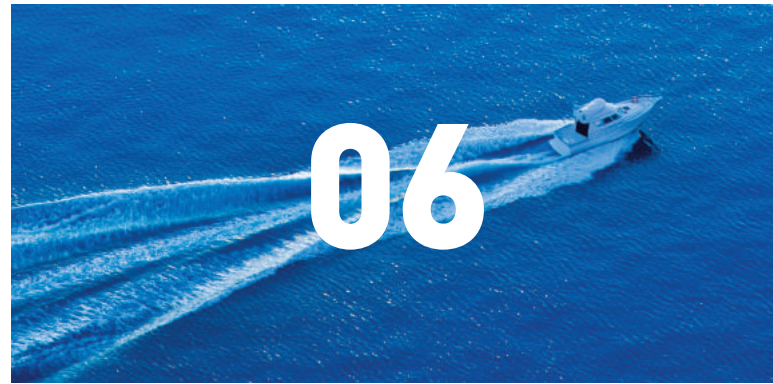
**KIMA+ Homo Odyssey** 24  
요트를 사랑한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KIMA+ Cine Marina** 26  
영화로 만나는 요트이야기

**KIMA+ Special 02** 28  
바다는 알고있다 응답하라 1988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

**KIMA+ Special 02** 31  
바다는 알고있다 응답하라 1988  
88 서울올림픽대회 IN 부산

**KIMA+ Special 02** 36  
바다는 알고있다 응답하라 1988  
음악이 있는 부산 바다



**KIMA+ Special 01**  
2016년 보트, 요트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  
KIMA WEEK 2016 부산국제보트쇼 미리보기



**KIMA+ Special 01**  
해양레저산업, 미래에 눈을 뜨다  
제1회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KIMA+ Special 02**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볼 시간  
부산 바다는 알고 있다?! 응답하라 1988



**KIMA+ Now**  
해양강국 코리아로써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KIMA WEEK 2016!  
그 가슴 벅찬 항해가 시작된다.



**KIMA+ Special 03**  
해양+문화 새로운 랜드마크가 떠오른다.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거점이 될  
핫스팟은?



**KIMA+ Education**  
육지와 바다를 막힘없이 달린다!  
영산대 수륙양용보트 도입,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다.



38 **KIMA+ Now**  
미리 만나는 KIMA WEEK 2016  
KIMA WEEK 2016 주요 프로그램

40 **KIMA+ Now**  
미리 만나는 KIMA WEEK 2016  
KIMA WEEK 2016 조직위원회 출범식

42 **KIMA+ Now**  
미리 만나는 KIMA WEEK 2016  
INTERVIEW WITH 정준호

44 **KIMA+ Special 03**  
MARINE+CULTURE  
해양 + 문화  
새로운 랜드마크가 떠오른다

48 **KIMA+ Education**  
영산대 수륙양용보트 도입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다

50 **KIMA+ Brief**  
주요 단신 기사

# 春봄 바다로부터

봄에는  
바다에도 꽃이 피니다.

햇살 머금은 포말이  
하얀 즐거움을 터뜨리고,  
푸른 아지랑이는  
겨우내 기다려온 **희망**을 간지럽힙니다.

봄에는...  
바다에서는 모두가 희망을 마주합니다.  
바다와 더불어 꿈을 꾸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마다의 다양한 표정이,  
사람살이의 풍성한 향연이  
한껏 부푼 봄바다 위로 벅차오릅니다.

올해도 *KIMA plus*는  
봄 그리고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봄은  
바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최신 보트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길

# KIMA WEEK 2016 부산국제보트쇼

2016. 3. 10(목) ▶ 13(일)

BEXCO 제1전시장(육상) | 수영만 요트경기장(해상)

#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 한 눈에 보는 KIMA WEEK 2016 부산국제보트쇼

**규모** 146개사, 1,052부스, 해상 15척

**관람객** 22,000명 예상

**주최**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주관**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BEXCO, 부산MBC, KOTRA

**특별해외협력기관** IMEA, NMEA

### 부대행사

컨퍼런스 및 세미나

비즈니스 상담회

올해의 보트상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보트컬 마린룩 패션쇼

보트 오픈 마켓 등

### 전시품목

보트·요트

엔진·부품·액세서리

서비스·시설·기타

워터스포츠

보팅 라이프 스타일

## 2016 부산국제보트쇼의 얼굴 스타요트 아나토미



01

Hyundai Yachts

### 현대요트(주) NEW SPORT 360

벡스코 제1전시장  
모터요트의 디자인을 새로 정의하  
며 역동성, 편안함, 공간 활용에 대  
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

#### SPECIFICATION

전장 LOA : 10.80m  
전폭 Beam : 3.59m  
흘수 Draft : 0.70m  
무게 Displacement : 6.951t  
엔진 Engine : 2 X D3-220EVC  
최대속력 Speed : 35Kn  
승선인원 Capacity : 8명

#### COMPANY INFORMATION

##### 업체정보

ADD.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길 7 조이타워 13F  
TEL. 02-561-1975

## (주)블루마린요트 MATRIX MIRAGE 760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해상전시장  
Mirage 760 Sailing Catamaran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넓은 공  
간과 빠른 스피드, 안정된 요팅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된 것이 특징



#### SPECIFICATION

전장 LOA : 21.85m  
전폭 Beam : 10.55m  
흘수 Draft : 1.5m  
무게 Displacement : 17t  
엔진 Engine : Yanmar RCD -6LY2X1 (240HP) x 2  
최대속력 Speed : 15Kn

승선인원 Capacity : 70명(국내 수용인원 기준)  
부대시설 Facilities : 노래방, 무대, 갤러리,  
미니바, 바비큐 시설, DJ BOX

#### COMPANY INFORMATION

##### 업체정보

ADD.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TEL. 051-911-8899

02

Blue Marine  
Yachts

03

Daewon  
Marine Tech.

(주)대원마린텍  
**BLUEWAY  
26**

벅스코 제1전시장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되고 있는 하이테크 선형으로  
WPH(Wave Piercing Planning Hull)타입의 고속 보트



**SPECIFICATION**

전장 LOA : 8m  
전폭 Beam : 2.8m  
흘수 Draft : 0.3m  
무게 Displacement : 2t  
엔진 Engine : out board type 250hp x 2 sets

최대속력 Speed : 35Kn  
승선인원 Capacity : 4명

**COMPANY  
INFORMATION**

업체정보

ADD.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82로 60번길 42  
TEL. 051-831-7540

04

Aron  
Flying Ship Ltd.

아론비행선박산업(주)  
**M80**

벅스코 제1전시장  
2016년 2월 세계 최초로 상용된 모델. 한국선급(KR)으  
로부터 AIP승인을 완료. 파고 1.8m의 해상환경, 비행  
고도 1m~150m를 자유롭게 운행하는 Type-B 위그선



**SPECIFICATION**

전장 LOA : 12.2m  
전폭 Beam : 13.6m  
흘수 Draft : 0.55m  
최대이수중량 Max. Take-off weight : 3,100kg  
엔진 Engine : PWC PT6A-34, 750마력  
(터보프롭엔진)

순항고도 Cruising altitude : 5m 이내  
최대속력 Speed : 220km/h  
승선인원 Capacity : 8명(최대 10명)

**COMPANY  
INFORMATION**

업체정보

ADD. 경남 사천시 용현면 온정 1길 63  
TEL. 055-834-6556

05

DONGNAM  
Boat Leisure Co.

동남보트레저산업  
**SMART TANK  
BOAT 310**

벡스코 제1전시장

안전성, 경량화, 편리성을 강화한 에어매트리스 전용  
모델로 수상레저면허 없이도 신속한 부상과 활주 가능



**SPECIFICATION**

전장 LOA : 310cm  
외폭 Beam : 162cm  
튜브직경 Tube Dia. : 47cm  
튜브중량 Tube Weight : 37kg  
매트중량 Air-Matress Weight : 9kg

권장엔진 Outboard Motor : 4~9.8마력  
승선인원 Capacity : 4~5명

**COMPANY  
INFORMATION**

업체정보

AD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66-1 동남빌딩 1층  
TEL. 051-817-7075

06

SDN Corp.

에스디엔(주)  
**SFB 600L**

벡스코 제1전시장

기존의 알루미늄 보트와 달리 데크  
와 배수구를 구성해 안정성을 올리고  
24시간 해상보관이 가능한 알  
루미늄 보트



**SPECIFICATION**

전장 LOA : 6m(모델 5m, 6m, 7m  
이상 주문생산)  
전폭 Beam : 1.9m  
흘수 Draft : 20cm  
무게 Displacement : 415kg  
(6m기준)  
엔진 Engine : HONDA 60Hp  
최대속력 Speed : 65km/h  
승선인원 Capacity : 6명

**COMPANY  
INFORMATION**

업체정보

ADD. 광주광역시 북구  
침단 벤처로 16번길 30  
TEL. 062-973-0280

부산국제보트쇼 제대로 즐기길 알짜 TIP

# 어서와~ 부산국제보트쇼는 처음이지?

부산에 살았어도  
생전 보트는 담 싹고 살았던 당신!  
아름도 몰라요~ 종류도 몰라~  
보트의 '보'도 모르는 생 초보여도 상관없다.  
당신을 위해 부산국제보트쇼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알짜 TIP만을 모아봤으니 즐길 준비 됐다면,

*Ready Get set JUMP!*



## #1

### 입장은 저렴하게! 관람은 풍성하게!

부산국제보트쇼를 통해 '보트무식자'에서 '보트유식자'로 거듭나길 소망하는 당신!  
그런데 입장료가 있던 사실은 알고 계셨는가?

성인이라면 단돈 5,000원으로 최신 보트, 요트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 조금만 더 부지런 떨어보자구. 먼저 KIMA PASS APP을 통하면 부산국제보트쇼 무료입장권을 다운받을 수 있어. 또한 전시회 모바일 등록 앱인 '캔고루'를 통해 사전등록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는 사실! 물론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무료입장이 된다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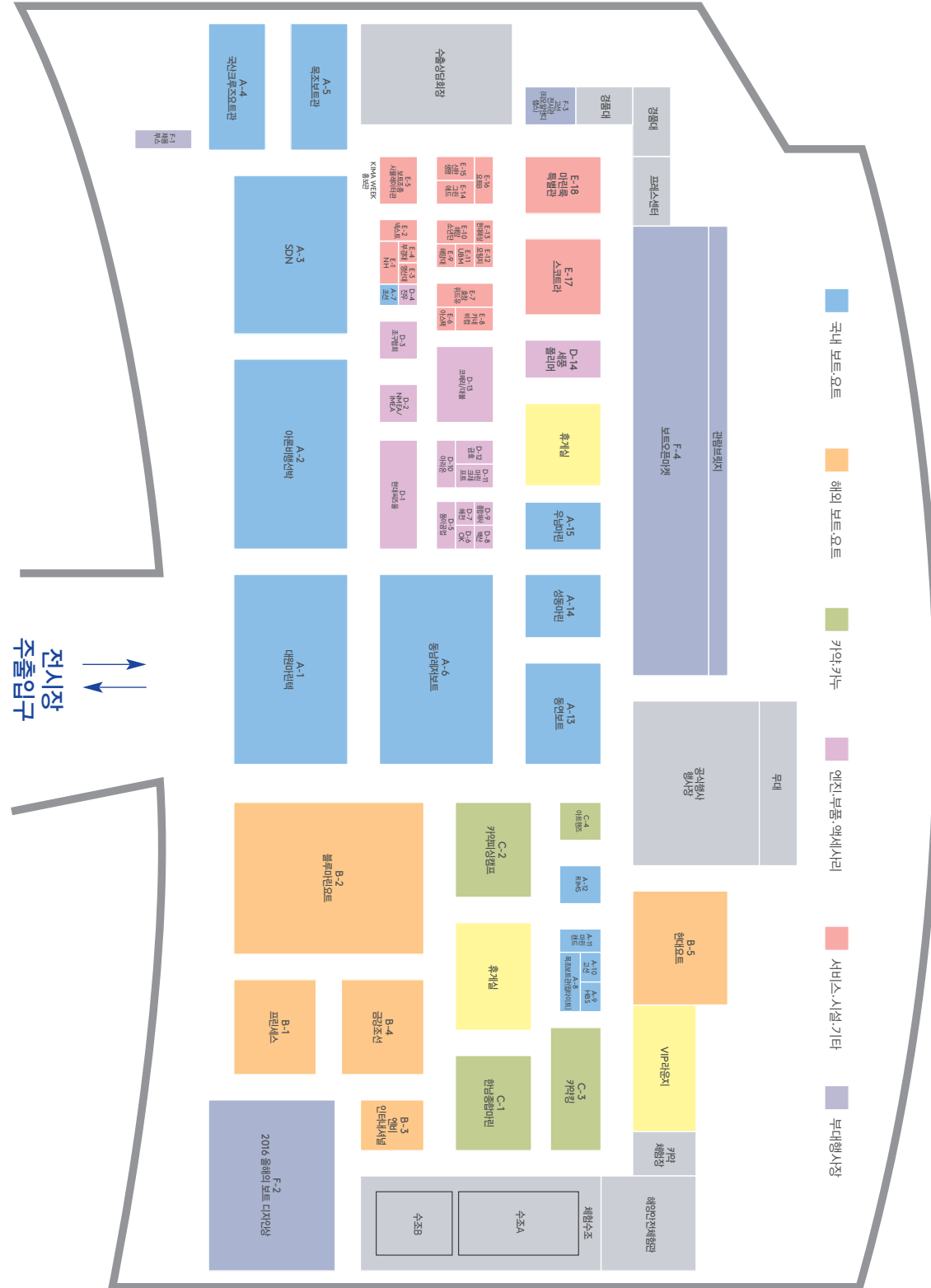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의 유명 카페, 베이커리 등에 비치된 할인권을 가져 오거나 현재 게시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부산국제보트쇼 홍보 광고물을 촬영만 해와도 반값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하라구!

'세계 모든 배를 섭렵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당당히 전시장에 입장했건만... 어디서부터 봐야할지, 도통 모르겠다면? 미리 전시장 도면을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해도 좋아. 특별히 올해는 작년에 비해 40여 곳이 늘어난 146개사가 다양한 품목을 선보이고 있으니 구석구석 부지런히 돌아야 제대로 관람할 수 있겠지? 아... 대한민국의 신조 보트, 요트 및 관련 최신 제품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콩닥~콩닥~ 가슴이 뛰어.

이뿐만이 아니야. 올해부터 해양수산부장관상으로 훈격이 상승된 '2016 올해의 보트상' 수상작도 현장에서 공개되는데, 가격경쟁력과 혁신성, 마감수준, 디자인,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심사위원들이 고심 고심 끝에 뽑았다고 하니, 현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부스 중 하나겠지?



# BOAT SHOW the exhibition center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벤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 먼저 해양 디자인 진흥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2016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부스를 주목해줘. 전국의 8개 대학교 학생들이 최첨단 미래형 보트 디자인을 3D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는데, 놓쳐서는 안 되겠지?

그리고 중앙 특설무대에서 '보트걸 마린룩 패션쇼'가 전시회 기간 동안 열릴 예정이야. 래쉬가드, 수영복, 서핑복, 신발, 액세서리 등 다양한 마린룩을 아름다운 모델들이 뽐낸다고 하니 패션 피플이라면 눈 여겨 봐도 좋아.

물론, 올해 가을에 있을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홍보관도 마련돼 있으니 꼭 한 번 둘러보길, 약속해줘~♪

#2

보트, 맛을 봐야 알지~

눈으로 보는 건 식상하다!

직접 체험해봐야~ “아~ 내가 제대로 즐기고 있구나~”를 느낀다면 부산국제보트쇼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들을 기억해줘. 카누는 물론 카약, SUP 시승 체험과 RC보트를 직접 조종하는 체험도 무료로 할 수 있다구! 가족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지?

만약 좀 더 익사이팅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위치한 해상전시장을 찾아도 좋아. 약 15여 척의 요트와 보트가 전시돼 있는데 승선 체험을 무료로 해볼 수 있어. 백스코에 마련된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입장권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으니 꼭 한 번 둘러보길 추천할게.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장소/기간(3.10~13)	대상
RC보트 조종 체험	백스코 제1전시장 내 체험수조	
카누·카약·SUP 시승 체험		일반인(선착순)
해양안전 및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체험	백스코 제1전시장 내 해양안전체험관	
요트·보트 승선 체험	수영만 요트경기장	



#3

지적인 당신이라면? 아카데미 강력추천



사전신청  
www.yachtbusan.com  
등록문의  
유마이스 051-741-3876

이번에도 다채로운 오픈세미나가 부산국제보트쇼 기간 동안 열려. 먼저 예비 창업자나 투자자라면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및 Q&A’와 ‘마리나업 창업투자설명회 : 요트구입에서 관리까지’를 들어보는 건 어때? 해양레저산업 전문가에게 듣는 세미나는 두고두고 유용할 거야.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대학원생 전시장 업체방문 / 진로상담’이나 ‘해양레저 선박의 취업멘토링’ 등을 꼭 이용해 보라구.

설명회 및 세미나

오픈세미나장 프로그램

일시	주제	대상
3/10(목) 14:00~17:00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및 Q&A I	(예비)사업자 및 투자자, 참가업체, 전국 관계자, 일반인
	2016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수상작 설명회	참가대학, 업계 관계자
3/11(금) 14:00~17:00	해양레저 선박의 취업멘토링	전공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및 Q&A II	(예비)사업자 및 투자자, 참가업체, 전국 관계자
3/12(토) 14:00~17:00	마리나업 창업투자설명회 I 선박, 레저기구 유지 및 관리	(예비)사업자, 선주 및 구매 예정자, 일반인
	보트피싱스토리 I 바다 낚시의 모든 것	낚시 동호회, 일반인

전문세미나장 프로그램

일시	주제	주최	대상
3/10(목) 14:00~17:00	Who is the National Marine Electronics Association? : Introducing the International Marine Electronics Alliance	NMEA	참가업체
	해양레저 선박 건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한국조선공업 협동조합	간담회 참여인사
3/12(토) 14:00~15:00	What is NMEA 2000? Why is it good to have on your boat?	NMEA 2000	참가업체

해양레저산업 전시장 투어(진로체험 및 채용정보 제공)

일시	제목 및 내용	대상
3/10(목) 16:00~17:00	주요산업별 전시부스 관람 및 채용정보 소개	전공대학생(사전신청)
3/11(금) 15:00~16:00		

#4

그래 결심했어!  
보트, 너 얼마면 돼?

지난해 부산국제보트쇼에서 가장 화제가 된 게 바로 보트 오픈 마켓(Boat Open Market)이야. 중고 보트를 현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상담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게 보트 오픈 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지. 지난해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처음 도입했는데 현장에서 깜짝 계약이 많이 이뤄져서 올해 보트 오픈 마켓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 상담하다 보면 보트의 매력에 푹 빠져 어느새 지갑을 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지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아, 참! 올해부터는 경품행사도 뽕뽕하다는 거 알고 있지? 무려 1천여 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보트와 5백여 만 원 상당의 고무보트 세트가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상상만으로도 두근거리지 않니?

뭐하고 있어?

빨리 부산국제보트쇼로 뛰어들지 않고...! KIMA+

보트 오픈 마켓  
업체 리스트 *list*

파워마린(주)

미국 3대 제조사에 속하는 Searay 320, Regal 3260, Regal 3560, 그리고 운전자에 특화되어 설계된 Searay 370을 전시한다. 패밀리 크루저요트 브랜드 중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들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Regal 3260을 꼽을 수 있다. Regal 시리즈 제품은 현재 국내에 있는 요트 및 보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높은 고객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파워마린 대표 김학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요트 유지 관리 및 판매, 수리 사업을 시작한 만큼, 오랜 노하우와 실력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상의 요트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로 요트

최고 38노트의 빠른 스피드로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Searay 290 Sundancer(파워 보트)를 선보인다. 데이 크루징용으로 넓은 실내공간과 각종 편의장치는 안락한 항해를 보장한다. 연식은 2007년산이며 9.47m에 260HP x 2마력이다.



“바다로 요트 대표 정우석입니다. 요트, 보트 매매 및 차터와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지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전 직원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매년 변신을 거듭하는 바다로 요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HBS Yachts

지난 2010년 경기국제보트쇼에 출품된 제품으로 핀란드 Kullar Boat업체의 X-Ellent 495를 전시한다. 15ft 급으로 풀 옵션이 갖춰진 요트이며 회사 데모용으로만 사용된 보트여서 사용감 없이 깔끔한 제품이다.



“신조 요트, 보트 전문 판매 및 컨설팅을 하는 HBS Yachts의 대표 백진우입니다. 회사에서 보유 중인 데모용 보트를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토탈마린

럭셔리한 크루징을 위해 건조된 파워요트에 액티브한 질주본능을 첨가한 Chaparral 330 Signature를 선보인다. 34ft 급으로 옵션이 세팅돼 있으며 디젤 엔진으로 연비 또한 우수하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크루즈급 요트만을 선별해 수입 판매하는 토탈마린의 대표 배준범입니다. 안락한 항해에 익사이팅한 스릴을 아쉬워했던 오너라면 스포츠 크루즈 파워요트, 자신 있게 추천해드립니다.”

(주)대원마린텍

리프팅 킬 시스템을 적용하여 국내 해양 특성상 불규칙적인 수심에 따라 킬 높이를 조절하여 항해를 즐길 수 있는 Veria 33을 판매한다.



“대원마린텍 영업과장 한상천입니다. 저희 업체는 관공선, 도선선, 유람선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장비까지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승부하는 업체로서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외선진기술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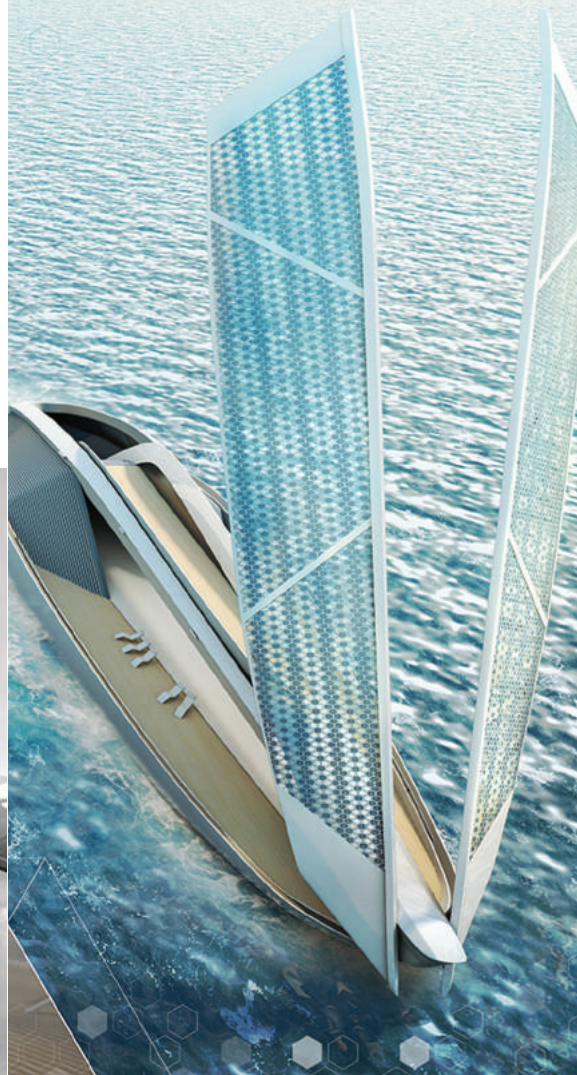
본 이미지는 2016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출품작 중 KIMA PLUS 편집팀의 임의로 선정한 것이며  
수상여부와 무관합니다.

2016 부산국제보트쇼의 핫 이슈

#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을 말하다

## Q1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소개?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은 한국해양디자인학회가 출범하면서 주최하는 첫 번째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이미 국제산업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해양산업 디자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선진화된 타 국가에 비해 디자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의 해양산업 디자인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한국디자인진흥원,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3월 10일 벅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의 운송기기 디자인은 생각보다 진보된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어 보트 및 비행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Q2 보트 디자인에 관심 갖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

해양산업은 이미 국제 산업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유럽, 미주 등의 타 국가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거시적 안목으로 이미 발전된 산업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타 국가의 선진화 사례에는 국가의 문화와 산업이 연계된 구조에서 디자인이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의 주요소가 대중화 될수록 그 연계된 성장도 가속화 됩니다. ICOMIA(International Council of Marine Industry Associations)의 2014년 세계해양레저장비 수출현황을 보면 유럽, 미주의 보트수출 비중이 전체 해양레저장비 수출의 80%이상을 차지하며 해양산업 대중화의 주요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양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보트를 대중화하기에 이상적인 해양환경과 최적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형조선분야 세계 1위로 조선해양대국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분야의 급속한 성장세로 관련 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트산업의 본격화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트 디자인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 접근하며 각 타깃층의 만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레저산업의 플랫폼인 보트산업의 시장성을 활성화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 Q3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심사기준 및 심사평?

‘해양레저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친수형 보트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8개 대학이 경합을 펼쳐 최첨단 미래형 보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총 30여 편이 출품됐으며 그 중 8개 작품이 해양수산부장관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상,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등을 수상하게 됩니다. 심사기준의 대전제는 근 미래의 디자인 콘셉트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각 디자인에 대한 관점과 해석에 따라 평가 후 조율되며 향후 업계의 트렌드 변화를 수용하며 기술과 조형적으로 완성도 있고 사용자 측면의 안정성과 쾌적성,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며 해양레저시장에서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완성도 있게 표현한 작품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  
부경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  
유상욱 교수  
  
사) 한국해양디자인학회  
융합형 디자인대학 육성사업  
마린시스템 융합디자인 사업단장

## Q4 수상작 발표 및 전시 일정?

수상작은 3월 10일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작품설명회에서 우선 소개되며 시상식은 당일 19시에 진행됩니다. 3월 11일 이후 수상작은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 홈페이지(<http://bestboatdesign-award.com/>)에 게시되며 상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양산에 있는 미래디자인센터에서 장기간 상설 전시계획이 있습니다.

## Q5 앞으로 대한민국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의 목표와 방향?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통해 국제해양디자인콩쿠르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트 디자인 지명 공모전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해양기술력과 문화를 연결하는 교두보의 역할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MA+

# ALBERT EINSTEIN

## 요트를 사랑한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 아인슈타인의 50번째 생일 선물 '툼머'

1929년 3월 14일,  
알버트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이  
50세 되던 생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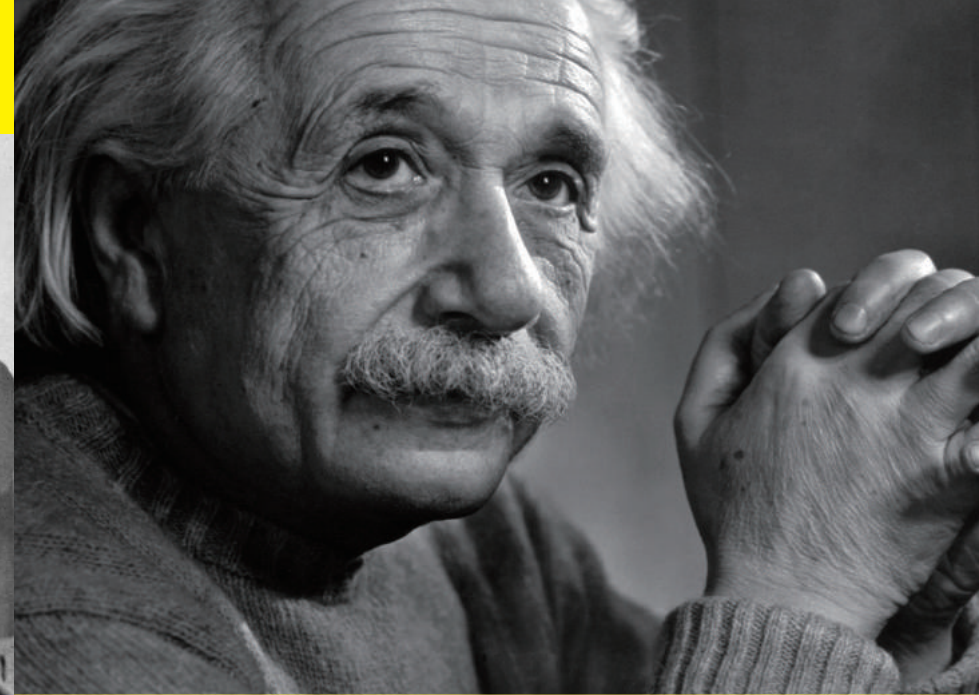
생일을 축하하러 찾아온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은 아  
주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다. 미국인 은행가였던  
헨리 골드먼(Henry Goldman)이 아인슈타인의 50  
번째 생일을 기념하여 요트를 한 척 선물한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50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요트는 툼  
머(Tummer)라 이름 지어졌다. '꼭예사'라는 뜻을  
가진 이 요트는 하벨강에 띄워져 아인슈타인의 더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일평생 수많은 연구업적으로 인류에 영향을 미친 천  
재 과학자였지만, 그의 연구와 생활은 대부분 연구  
실 안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요트 타기  
는 집 밖에서 즐기던 유일한 놀이였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기분 전환하는데 가장 좋은 방  
법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요  
트 타기를 꼽았다고 한다.

그의 의붓딸 마고는 생전 아인슈타인의 요트 타기  
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였다.

"아버지와 요트를 타고 있으면 마치 아버지가 요트  
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그 자신  
이 하나의 자연이었고,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알  
수 없는 강한 분위기가 풍겨져 나왔어요. 마치 바다  
를 헤쳐 나가는 오디세이 같았죠."



## HOMO ODYSSEY

### 아인슈타인의 요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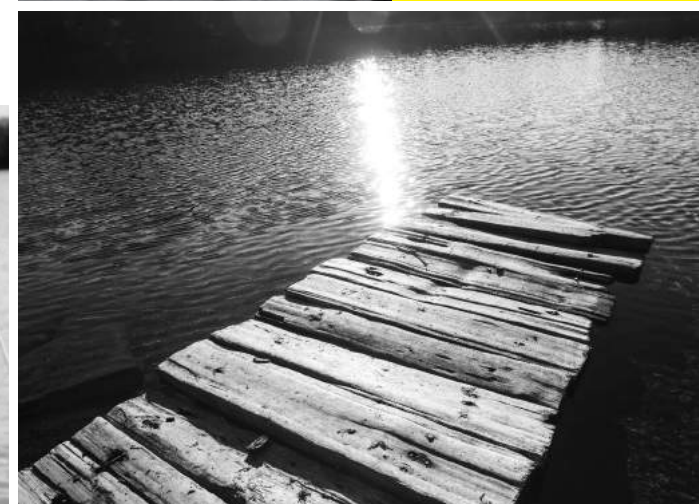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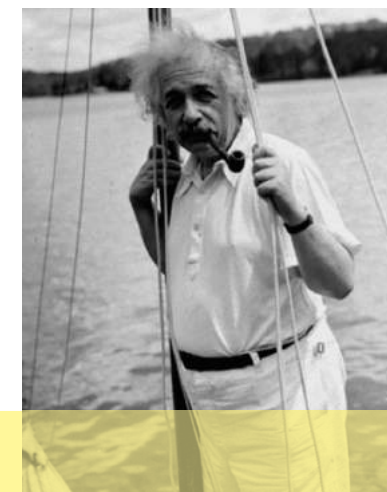
말년에 아인슈타인은 새 요트를 하나 장만한다.

이름은 '티네프(Tinnef)'라 지었다. 이디시어로 '싼 물건'이라는 뜻이라니 역시 아인  
슈타인다운 작명이다. 아인슈타인은 티네프를 타고 카네기 호수를 돌아다녔다. 강가  
에 요트를 띄우며 바이올린을 즐긴 천재, 아인슈타인.

그는 요트 위, 강 한복판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책에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  
해 그에게는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요트 위에서 따사로운 햇살과 바람을 느  
끼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인슈타인의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했을 것이다. 툼머와  
티네프가 아인슈타인에게 행복감을 선사했다면, 그의 위대한 업적에 요트도 한 몫 하  
지 않았을까 ... 상상해본다. **CIMA+**



## ALBERT EINSTEIN



# YACHT MOVIE

## 영화로 만나는 요트 이야기

### 화려한 휴가 안식의 절정 007 카지노 로얄

007 시리즈와 슈퍼요트는 때놓기 어려운 조합이다.

007 시리즈에 등장하는 모든 탈것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듯, 요트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카지노 로얄>에서 제임스 본드(다니엘 크레이그)는 첩보기관 MI6으로부터 007이란 임호명을 부여받고 마다가스카에서 테러리스트 몰라카(세바스찬 파우칸)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 과정에서 본드는 르 치프레(매즈 미켈슨)에게 납치되어 고문당하다 극적으로 구조된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후, 요양 중인 제임스 본드는 아름다운 본드걸과 함께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것 또한 요트였다.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요트는 영국의 명품보트 제작사인 '선시커(Sunseeker)사'의 'Predator 108 special edition'으로 슈퍼요트다운 규모의 위용과 로켓의 바디를 연상케하는 날렵함을 모두 가졌다. 007 제임스 본드의 강하고 화려한 이미지와 그 뒤에 숨겨진 내면의 그림자를 함께 드러내기에 아쉬움이 없는 공간 연출이었다. 무엇보다 관객들의 눈이 제대로 호강했던 명장면으로 기억된다.



**Predator 108 special edition**

길이(m)	선폭(m)	흘수(m)	연료탱크(L)	청수탱크(L)	최고속력(kn)
32.90	6.30	1.20	11,000	1,801	42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탁 트인 바다를 가로지르는 두 남녀, 그들의 손에 들린 빛나는 와인 잔... 영화 속 요트의 세계는 우아하고 화려하기 그지 없다. 영화의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요트는 관객들의 눈길을 그리고 마음을 훔친다.

감독들이 슈퍼요트를 매력적인 피사체로 여기는 이유 또한 여기 있다. 요트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였을까? 또 영화의 색깔을 덧입은 요트들의 실체는 어떤 모습일지, 씨네 마리나에서 만나보자!



**Princess 54 flybridge**

길이(m)	선폭(m)	흘수(m)	연료탱크(L)	청수탱크(L)	최고속력(kn)
16.57	4.57	1.75	2,500	592	30

### 머나먼 동경 처절한 항해 무방비도시

수사망을 피해 일본 도피생활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타투샵을 운영하는 소매치기 백장미(손예진).

그런 그녀의 꿈은 40억 상당의 요트를 한 채 사는 것. 범죄를 통해 축적한 돈으로 끝내 요트를 구매하고 마는 그녀.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영화의 마지막, 경찰에게 쫓기던 백장미는 우여곡절 끝에 자신을 저 멀리로 보내줄 꿈의 요트에 승선한다. 그녀를 뒤쫓던 천재 형사 조대영(김명민)은 그녀를 향해 총을 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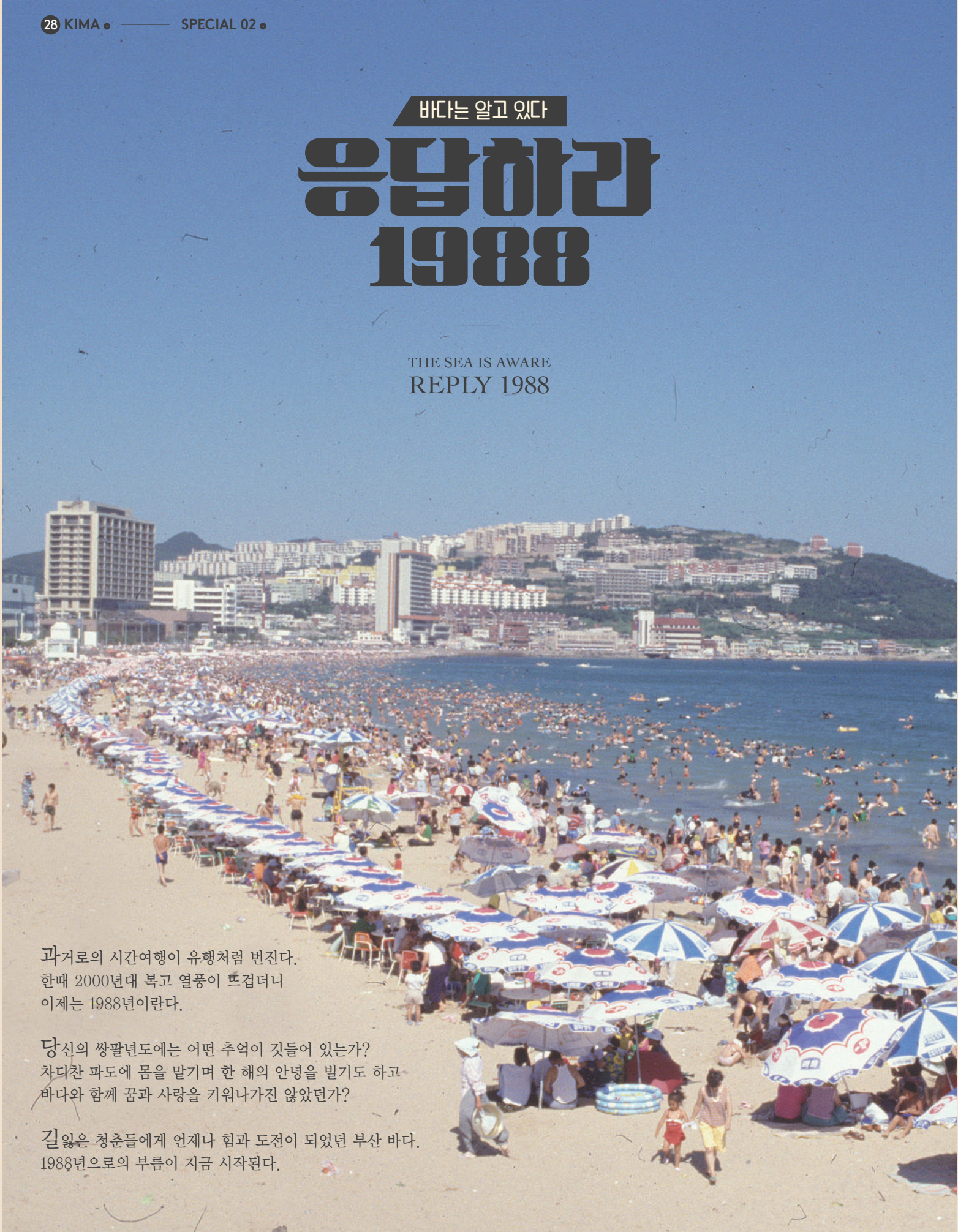
이 장면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촬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보트는 영국의 명품 요트인 'Princess 54'이다. 세계적인 레저보트 브랜드인 프린세스 요트는 복층 구조로 최고급 설비를 갖춘 객실(12~15인승)을 갖추고 있다. 공정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목재 건조기간만 대당 1년에서 1년 반 가량 걸리며 최고급 사양의 경우 1대에 100억 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드라마 <환상의 커플>, <007 시리즈>등 많은 영화에서 등장한 바 있다. KIMA+

바다는 알고 있다

# 응답하라 1988

THE SEA IS AWARE  
REPLY 1988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유행처럼 번진다.  
한때 2000년대 복고 열풍이 뜨겁더니  
이제는 1988년이란다.

당신의 쌍팔년도에는 어떤 추억이 깃들어 있는가?  
차디찬 파도에 몸을 맡기며 한 해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바다와 함께 꿈과 사랑을 키워나가진 않았던가?

길 잃은 청춘들에게 언제나 힘과 도전이 되었던 부산 바다.  
1988년으로의 부름이 지금 시작된다.

응답하라  
1988

보통 사람들의 비범한 도전!

##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

”으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5,000명의 용자들이 바다를 향해 돌진한다.

### 01

FEATURE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가 열리던 날.  
체감기온 영하를 뚫는 찬혹한 날씨에도 사람들은 얇은 수영복 하나 걸쳐 입고 거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대한민국 최고의 겨울 축제!  
“겨울 바다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들어간 사람은 없다”더니 연신 “얼어 죽겠다”하면서도  
얼굴은 신나 있다. 겨울 바다에 매료되면 약도 없다는데 영국 BBC방송이 세계 10대 이색스포츠로 선정할 만큼 전 세계적  
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

사실 우리들의 쌍팔년도에 시작되었다는 걸 당신은 알고 계셨는가?

HAEUNDAE  
POLAR BEAR  
SWIM  
FESTIVAL



사진제공 해운대구청

1988년도  
우리들의  
부산 바다는  
청춘으로  
넘실댔고  
환희와  
놀라움으로  
넘쳐났다.

부산 해운대에서 북극곰 수영대회가 처음 열린 것은 1988년.

당시 조선비치호텔이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며 주한 외국인과 호텔 내 헬스클럽 회원들을 초청해 만든 행사였다. 첫 대회 참가자는 5개국 50여명 남짓. 대회 초기만 해도 참가자보다 호기심에 찬 구경꾼이 훨씬 많았다. 한겨울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던지는 건 보통 사람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참가자들은 난생처음 눈앞에 펼쳐진 무모한 도전 앞에 적잖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푸른 바다는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겹겹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1988년도 우리들의 부산 바다는 청춘으로 넘실댔고 환희와 놀라움으로 넘쳐났다. 30여 년 전 그날!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도전이 오늘날 5,000명이 참가하는 국제 행사로 성장할 거라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편 북극곰 수영대회는 캐나다가 원조다. 1920년 캐나다 밴쿠버 잉글리시 베이에서 새해를 기념해 수영선수 10여 명이 바닷물에 뛰어든 것이 시초가 돼 북극곰 수영대회(Polar Bear Swim)는 지금까지 100여년이 가까운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렇게 겨울 바다 수영대회가 인기를 끄는 것은 “차가운 물에서 수영을 하면 심폐기능이 좋아져 감기나 잔병치레를 하지 않고 피부도 고와진다”는 속설을 믿기 때문. 또 추위를 극복하는 도전정신으로 하면 된다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울 수 있고 축제에 함께 참가한 사람들과 기억에 남는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새해 아침, 많은 나라에서 겨울 바다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다.

처음, 겨울 바다를 마주하고 싶을 때... 야심차게 새해 다짐을 하는 기분은 어땠을까? 살을 에는 고통을 참아내고 얻은 희열과 승리감이 오늘날의 북극곰 수영축제를 만든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KIMA+**

응답하라  
1988

보통 사람들의 비범한 도전!

## 88 서울올림픽대회 IN 부산

부산 시민들이 요트를  
처음 접하게 된 건 언제일까?

### 02

FEATURE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1988년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팔도강산이 서울올림픽대회의 열기로 고조되던 1980년대! 부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요트경기본부로 선정되며 수영만 요트경기장 준공부터 도시환경정비까지, 올림픽을 제대로 치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발 빠르게 이뤄졌다. 그리고 우리는 1988년 가을, 16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 당시, 부산 사람들에게 굉장히 낯설었을 요트. 하지만 작은 요트 한 척은 누군가의 마음에 남아 지금껏 항해하고 있다.

꿈을 좇아 30여 년 간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지키는 파워마린(주) 김학철 대표!

KIMA WEEK 위원으로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를 만났다.

88 SEOUL  
OLYMPIC  
GAME  
IN  
BUSAN



사진제공 해운대구청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

**#1** 요트와의 첫 만남!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저는 88 서울올림픽에서 요트경기 담당관으로 근무했는데요. 그때 처음 요트를 타게 됐습니다. 20대 중반에 ‘씨 와이프 (Sea Wife)’라는 배를 타고 광안리 앞바다를 도는데 그 전엔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후 ‘나도 이런 요트를 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 꿈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웃음) 또 올림픽을 준비하며 ‘크레이그’라는 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요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진 요트를 보급하는 ‘비즈니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도전하게 됐습니다.

**#2** 이제는 말할 수 있다!  
88 서울올림픽 요트경기를 준비하며 생긴 일

올림픽대회를 1년 남짓 앞둔 1987년 7월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풍 셀마’의 상륙으로 요트경기장의 시설이 부서지고 떠내려가는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주변에선 ‘제대로 보수해서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준비하던 저희들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올림픽 전까지 수습 작업이 마무리 되고 1988년 여름에는 큰 태풍 없이 좋은 날씨가 이어져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88년 여름을 보내며 또 태풍이 올까봐 얼마나 노심초사 마음을 졸였겠어요. (웃음)

또 요트경기장 건설 당시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수영만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영 하수처리장이 신설되고 자흡식 폭기기를 설치하는 등 수질 개선에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올림픽 참여선수들로부터 ‘최상의 수질’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깊은 수심과 강한 조류 등으로 해상 경기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특히나 정확한 위치에 ‘마크정’이 가서 ‘마크’를 떨어뜨리는 작업은 그 전에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험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요트경기 자체가 모두에게 생소하고 낯설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3** 저기 뭐하는기고?  
서울올림픽 요트경기 있던 날

해상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 관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직위에서는 관람객들이 요트경기를 보다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요트경기 관람선을 운영했는데요. 바다에서 요트경기를 즐기는 낭만은 있지만 요트에 대한 경기 규칙을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관람은 하는데 언제 박수를 쳐야 할지’, ‘언제 응원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 어려웠다는 후문도 들리더라고요.



88 서울올림픽대회 요트경기

참여 국가수	62개국
참여 팀수	214개팀
선수 및 임원	685명
경기관람 관중 수	3,669명 (평균 459명 / 일)
개폐막식 관중 수	4,400명

기록으로 남은 미담사레

88. 9. 23. 올림픽 요트경기 제4레이스에서 B수역의 Finn급에 참가하여 2위로 달리고 있던 캐나다의 Lawrence Lemieux 선수는 같은 수역에서 경기 중 이던 470급의 싱가포르 선수 2명이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싸여 위험한 상태인 것을 발견. 이들을 10여 분 만에 구조한 뒤 다시 경기에 임하였으나 결과는 최하위의 성적을 득함. 국제 심판단에서는 이러한 바다에서의 스포츠맨십을 요트인의 귀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선수의 성적을 “YMP”(실제로 불리하게 된 요트)로 판정하고 구조당시의 성적인 2위를 당일 레이스 성적으로 인정키로 결정 하였다.



바다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하계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트전문회사가  
되었다

**#4** 요트경기 담당관  
요트관리전문회사 CEO되다!

올림픽이 끝나고 국가에서 국가기관 또는 공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지만 저는 요트에 대한 꿈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1989년 6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요트관리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요트관리 할 대상이 많지 않았고 기술이 부족해 고심하던 끝에, 지인의 도움으로 싱가포르와 미국에서 요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 돌아와 요트사업을 조금씩 일으키던 중 '요트는 과소비'라는 인식으로 위기가 찾아왔고 또 다시 일으켜 놓으면 'IMF'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태풍 매미' 때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시설의 약 70% 이상이 파손됐는데요. 그때 가지고 있던 요트와 관리 요트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바다에 대한 꿈을 저버릴 수 없었기에 지금까지 하계 됐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요트 전문회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5** 1988 요트경기장  
VS 2016 요트계류장

1986년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만들어지고 이곳은 폐쇄된 공간으로 부산시민들에게 인식돼 왔습니다. 올림픽을 이유로 통제하기도 했고 1988년까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이후 사실 요트다운 요트는 2~3대에 불과했습니다. 1번 계류장을 주로 이용했고 그 외 지역은 갈매기 놀이터였습니다. 이용객이래야 요트 선주의 지인들이 다였고 돈을 받고 빌려주는 요트는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요트 파라다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500여대의 요트가 항시 계류 중에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요트가 찾아오지만 빈자리가 없어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제도는 2001년부터 법제화되어 지금 면허 소지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작년 7월부터 시행하는 마리나 법에 따라 마리나에서 돈을 받고 태워주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약 3만원에서 10만 원 정도, 전세는 계약에 따라 편차가 많습니다.

**#6** 대한민국 최대 해양레저관광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선결과제

우선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 많아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외국 요트들이 자유롭게 입출항을 할 수 있도록 마리나 가까운 곳에서 CIQ를 받을 수 있는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요트 마리나로 지정된 곳은 10여 곳으로 모두 민자 투자 방식입니다. 요트 선진국에 가보면 해안을 끼고 있는 각 도시마다 시에서 운영하는 요트 마리나가 하나쯤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설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곳보다 못하지만 마리나 이용료가 매우 저렴해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공사를 하려면 '기존의 요트들을 어디로 보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후에 시행했으면 합니다. 기존에 머무르던 국내의 요트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계속 부산에 머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대한민국 최대 해양레저관광도시'라는 수식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KIMA+**



「 꿈을 좇아  
30여 년 간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지키는  
파워마린(주)  
김학철 대표! 」

# 음악이 있는

# 부산 바다

03  
FEATURE

부산에 가면 | 에코브릿지(With, 최백호)

많은 사람들의 설렘과 추억을 담고 있는 도시, 부산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의 낭만을 추억하며 살아온 최백호에게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이 곡에 깊고 진하게 스며들어있다.



○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릿결을  
훔날리며 나를 반겼던

○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 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취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맞춰본다

○ 부산에 가면

# 돛을 올려라!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을 일으킬 순풍이 시작된다!

## ABOUT POSTER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을 일으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돛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하는 KIMA WEEK! 평평하게 퍼진 파란 돛에서 세계로, 미래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희망찬 미래가 느껴진다. 또한 키마 컬러(KIMA Red & KIMA Blue)를 대조되게 배치해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거침없이 전진하는 요트는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 내일을 의미하며 보는 이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킨다.



## 2016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KIMA WEEK 사무국 Tel. 051-760-1130 | Fax. 051-760-1134 www.kimaweek.org  
 부산국제보트쇼 사무국 Tel. 051-740-8600 | Fax. 051-740-7640 www.boatshowbusan.com

### OVER VIEW

####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위크

일정\_ 2016년 10월 5일(수) ~ 11일(화) / 7일간  
 장소\_ 부산 해운대, 광안리, 수영강 일원, BEXCO  
 주제\_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축제

### PROGRAM

#### Grand Opening

일시\_ 2016년 10월 5일(수) 14:00 ~  
 장소\_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국제컨퍼런스

일시\_ 2016년 10월 5일(수) 15:00 ~  
 장소\_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제2회 KIMA Awards

일시\_ 2016년 10월 5일(수) 14:00 ~  
 장소\_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그랜드볼룸

####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홍보관

일시\_ 2016년 10월 5일(수)  
 장소\_ 해운대 BEXCO 컨벤션홀 3층

#### 해양레저 체험페스티벌 - 만원의 행복

일시\_ 2016년 10월 5일(수) ~ 소진시  
 장소\_ 부산 광안리, 해운대 일대

#### 어린이 해양레저 직업체험 페스티벌

일시\_ 2016년 4월부터 연중  
 장소\_ 해운대 센텀시티 키자니아 부산점

#### 해양레저 다큐멘터리

주제\_ 해양레저도시의 축제와 마린 산업  
 방송일정\_ 2016년 3/4분기 중(예정)

####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제목\_ 해양버라이어티 '바다야 놀자'(시즌4)  
 방송일시\_ 2016년 6월 ~ 8월, 총 10편

#### 연계행사

#### 제3회 부산국제보트쇼

일시\_ 2016년 3월 10일(목) ~ 13일(일) / 4일간  
 장소\_ 해운대 BEXCO 제1전시장, 수영만 요트경기장

#### 광안리 달빛수영 페스티벌

일시\_ 2016년 7월 중  
 장소\_ 광안리 해수욕장

#### 제6회 코리아오픈 부산국제드래곤보트대회

일시\_ 2016년 8월 30일(화) ~ 9월 4일(일) / 6일간  
 장소\_ 수영강 APEC 나루공원

바다가 피어난다 도전이 시작된다

# 조직위원회 출범식

KIMA WEEK 2016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KIMA WEEK 2016)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지난 2월 16일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문철호·박용수 공동 조직위원장을 중심으로 5개 위원회, 70여명의 위원들이 위촉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오고 갔다.

올해 행사는 10월 5일(수)~11일(화)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BEXCO, 수영강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양레저 문화 확산과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제회의가 열리고 해양레저 채용정보관·기업 홍보관도 문을 연다. 이를 위해 10월 초부터 크루즈요트, 제트보트, 파워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직접 체험하는 '해양레저 체험페스티벌-만원의 행복'이 해운대와 광안리에서 열려 해양레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또한 KIMA WEEK와 함께 열리던 부산국제보트쇼는 개최시기를 앞당겨 3월 10일부터 나흘간 부산 백스코와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열린다.

해운대구 신세계센텀시티에 개관하는 키자니아 부산점에서 4월부터 해양레저 직업(보트조종사, 크루즈, 조선, 항만, 해기사, 해양안전, 해양금

용)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어린이들은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로 해양레저를 직접 조종하는 체험을 한다.

부산MBC는 해양레저도시와 마리나 산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유명 연예인이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는 해양버라이어티 프로그램도 방송한다.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해양강국 코리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될 KIMA WEEK 2016!

그 희망의 바다가 피어난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KIMA+**

# Interview with Jung Jun Ho

“승선 전의 묘한 설렘, 흥분되지 않나요?”

KIMA WEEK 2016 홍보대사

**KIMA** 해양레저의 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준호 씨는 유독 부산과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을 자주 찾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준호** 네, 저에게 부산은 늘 제2의 고향처럼 푸근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부산의 푸른 바다는 바라보기만 해도 저에게 힐링을 주는데요. 현대적인 도시 건물과 해산물을 비롯한 특유의 먹거리, 또 해양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문화까지! 그 어떤 세계적인 해양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부산 여행을 많이 추천하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였다가 나중에는 더 있고 싶다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도 부산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을 세운 것 같아요.(웃음)

특히나 가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와 KIMA WEEK가 함께 열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뜨거운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산의 낭만적인 바닷가 모습을 늘 그리워하고 동경하는 저, 이만하면 ‘부산 사나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웃음)

**KIMA**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IMA WEEK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는데 곁에서 바라본 KIMA WEEK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정준호** KIMA WEEK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국제 규모의 해양레저 축제입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의 홍보대사를 맡게 돼 뿌듯하면서도 한편으

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양레포츠 사업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소하다’, ‘어렵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KIMA WEEK에선 드넓은 바다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양레포츠를 쉽고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컨퍼런스와 부산국제보트쇼 등이 열려 해양레저 산업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해양을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게 KIMA WEEK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KIMA** 그럼 올해 KIMA WEEK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준호** 오는 3월에 있을 부산국제보트쇼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보트를 한자리에서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흥분되는데요. 국내외 신조 요트, 보트 및 관련 최신제품들을 그 어느 곳보다 빠르게 만날 수 있어 해양 레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울 따름입니다. 부산국제보트쇼에 오시면 백스코 전시장과 함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마련된 해상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실제 바다에 떠 있는 요트와 보트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부산국제보트쇼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승선을 앞두고... 배에서만 느껴지는 묘한 설렘 같은 게 있잖아요. 부산국제보트쇼에 오셔서 기분 좋은 두근거림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IMA WEEK 2016 파이팅! **KIMA+**



# MARINE+ CULTURE

해양 + 문화  
새로운 랜드마크가  
떠오른다

## LAND MARK 01

### 부산오페라 하우스

#### 위더프런트형 랜드마크로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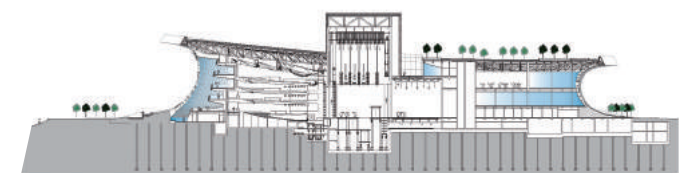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부산 북항에 문화예술은 물론 관광·휴식을 아우르는 위더프런트형 랜드마크로 건립된다.

부산시는 2016년 1월 2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 착수보고회를 열고 북항에 들어서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기본 디자인 콘셉트를 발표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재개발지 해양문화지구 에 부지 29,542㎡에 건물면적 52,284㎡,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진다.

주요시설로는 주공연장인 1,800석 규모의 오디토리움과 360석 규모의 콘퍼런스홀, 190석 규모의 폴사이즈 리허설실, 발레 리허설실, 오케스트라 리허설실, 전시시설, 아카데미 등이 들어선다. 건물 외관은 하나의 굴절도 없는 곡면 외피에 둘러싸인 공간으로 연출하고, 공연장도 하나의 악기 역할을 하는 첨단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로비는 도시 쪽 입구로부터 바다 쪽 입구까지 연결하는 연속적인 공간으로, 바다조망을 연결하는 유리면과 출렁이는 곡선 형태의 내부 목재 벽체로 이뤄진다. 오디토리움은 지상 1층에 무대시설을 설치하고, 1층 객석과 2~4층까지 3개층의 발코니로 꾸민다. 지상 5층과 6층은 레스토랑이 입주하며, 지붕 공간은 야외시네마와 전망공간, 야외극장, 옥상정원 등으로 조성된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해 오페라하우스 사업비 절감을 위해 옥상광장의 좌석을 줄이고, 360석 규모의 콘퍼런스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시는 이 같은 오페라하우스 기본설계안을 바탕으로 세부 시설배치와 규모 등을 조정하는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에 들어가 2020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부산 북항에 이같이 대규모 공연시설의 건립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복합리조트의 대상지구 선정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말부터 진행하는 북항재개발 토지분양 또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 기대된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해양문화시설 부지의 무상임대방안 조기 확정을 통해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대규모 공연문화 시설을 통해 부산경남권 지역민들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BUSAN OPERA HOUSE



위 치	북항재개발지 해양문화지구
규 모	총면적 52,284㎡, 대지면적 29,542㎡, 건축면적 16,171㎡ 오디토리움 1,800석, 콘퍼런스홀 360석, 폴사이즈 리허설실 190석 발레 리허설실 372㎡, 오케스트라 리허설실 421㎡, 전시시설 1,465㎡ 아카데미 1,056㎡
사업기간	2020년 완공 예정
사업비	약 2,115억 원

## LAND MARK 02

### 부산항 신 국제 여객터미널

#### 해양관광의 거점

중앙동에 위치한 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1978년에 완공되어 연간 약 100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왔다.

하지만, 애초 연간 30만 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된 기존 터미널은 시설 부족과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등 이용객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15년 1월 16일 부산항공사 창립 기념일에 맞춰 탄생한 신국제 여객터미널은 글로벌시대 부산항의 위상에 맞도록 세계 최고를 지향하며 계획 시공되었다. 연간 28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 13배 크기로 제작, 국제여객 및 크루즈 여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 터미널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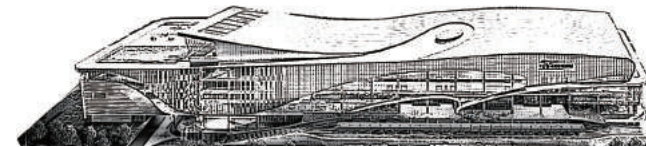
신 터미널은 접안시설로 10만 톤급 크루즈 전용 선석을 포함해 총 14선석(2만톤 5선석, 5백 톤급 8선석)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시설을 갖추었고, CIQ 시설과 면세점, 면세점 인도장, 은행,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적소에 배치되어 있다. 특히 터미널 5층에는 전시회, 박람회 등 MICE산업유치가 가능한 컨퍼런스홀, 다목적 이벤트홀, 중회의실 10개를 배

치하여 유동인구 유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 재개발사업 내 집객시설로서의 역량이 기대되고 있다.

신 터미널은 2층 입국장과 3층 출국장을 분리하여 승객 이동 동선을 단순화하고 지상층에 친수공원, 입출국장층에 전망데크, 무빙워크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증대하는 등 터미널의 편리함과 바다의 낭만을 더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신 터미널은 글로벌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친환경 에코 터미널로, 국내 터미널 사상 처음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최우수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에너지 성능 지표 최우수를 달성하는 등 친환경 기법 및 소재를 적용하였으며, 건축기간 중에는 BIM 어워드 비전부분 대상, 무재해 182만 시간 달성 등 건설관리 측면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신 터미널은 타 기관, 학계로부터 꼭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한 해 동안 1,500여 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가기도 했다. 신 터미널은 기존 물류중심인 북항을 해양관광의 거점, 해양문화의 새로운 공간으로써 기대를 키우고 있다. **KIMA+**



위 치	북항제3부두~제4부두일원
규 모	터미널92,945㎡(지하1층,지상5층), 화물창고 등 -주요도입시설 : 입·출국CIQ시설, 편의시설, 컨퍼런스홀 *입주예정기관(13개기관) -동백문화사(정보), CIQ, 군부대, 검·경찰청, 문화재청, 부산시(관광진흥과) 등
사업기간	2012.7.31.~2015.1.16.
사 업 비	2,343억원(BPA시행)



## BUSAN PORT INTERNATIONAL PASSENGER TERMINAL

영산대 수륙양용보트 도입

새로운  
교육의  
길을 열다

해양레저분야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일환,  
해양레저 안전 실습용



영산대학교 해양스포츠레저사업단은 2016년 2월 16일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수륙양용보트 '영산아라호'의 진수식을 가졌다. 영산아라호는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1호 선박으로 현재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유일한 수륙양용보트이다.

영산아라호는 ▲조타 자동 변환시스템 ▲무 충격 오토 랜딩 시스템 ▲자동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조향각도 감응 차동장치 등 운행의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정박해 있을 때도 태양전지를 이용해 충전되는 인공지능형 자동충전장치를 갖춘 친환경 하이브리드 수륙양용보트로 2014년 부산국제보트쇼에서 '올해의 보트'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보트 진수식은 지난 2015년 '부산국제보트쇼'와 'KIMA WEEK' 기간을 통해 진행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해양레저산업 강소기업 부산 유치 전략과 주골든블루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과 부구육 영산대 총장, 문철호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대표이사장, 박용수 (주)골든블루 회장, 이성용 (주)블루마린요트 대표, 김중재 (주)성동마린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수식의 하이라이트, 샴페인 세례가 거행됐다. 이는 '샴페인의 병을 천체에 부딪쳐서 깨뜨리는 것'으로 이 기원은 바이킹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의식에는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과 정준호 KIMA WEEK 2016 홍보대사가 함께해 영산아라호의 안전을 기원했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가로지르며 선박으로써의 생명을 얻은 영산아라호, 시승식에 참여한 정준호 KIMA WEEK 2016 홍보대사는 "수륙양용보트는 처음 타보는데 영화를 찍는 것 같았다"며 "수륙양용보트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같은 꿈의 배이다"라는 소감을 남겨 수륙양용보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다.

부구육 영산대 총장은 "대학이 실습용 보트 등 해양레저 교육 인프라를 마련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쏟고 이와 함께 해양레저산업 강소기업의 부산 유치, 부산지역 해양레저서비스 확산을 위한 부산시의 혁신적 노력 등이 함께 지속된다면 해양레저산업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산아라호는 해양레저 관광학과 학생들의 조종 실무교육과 해양레저 안전교육 등 해양레저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부산시민수상구조대의 구급용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KIMA+**



- 01 영산아라호가 바다에 입수하기 전 육지를 달리고 있다.
- 02 수륙양용보트답게 육지에서 곧장 바다로 들어가 운행되고 있다.
- 03 노찬용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과 정준호 KIMA WEEK 2016 홍보대사는 샴페인 세례를 통해 영산아라호의 안전을 기원하고 있다.
- 04 영산아라호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유일한 수륙양용보트이다.

# KIMA BRIEF

##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 + 2015. 12. 9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나성린 국회의원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문철호 대표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2015 국회정책토론회'가 '해양레저 문화융성을 통한 마린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정책토론회는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활성화 정책 및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로 2012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여야 국회의원과 해양레저산업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국내 해양레저문화의 주요 문제점과 동향을 살펴보고 대중적 여가문화로의 발전가능성을 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갔다. 그간 개최됐던 정책토론회는 주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사항 등 해양레저산업 전반의 시스템에 관한 정책토론회였는데 반해, 이번 정책토론회는 해양레저산업의 문화적 측면에 관하여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 2016. 1. 21 부산MBC 8층 대회의실

1월21일,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2016년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각 위원별 소속위원들과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운영위원 위촉식과 각 위원별 2016 주요사업에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다. 여한웅 사무총장은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이하 KIMA WEEK 2016으로 표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추진 중인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국제해양레저 콤플렉스 사업'을 통해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KIMA WEEK 행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한국해양레저산업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직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소속위원들은 한국 해양레저산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공유하고 올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2016 정기총회 및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 조직위원회 출범식



### + 2016. 2. 16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킹 구축으로 '해양레저 강국 코리아'의 비전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지난 2월 16일, 2016 정기총회 및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이하 KIMA WEEK 2016으로 표기)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먼저 2015년도 성과보고와 결산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조성과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1년을 돌아보았다. 이어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명의 임원을 선임, 위촉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문철호 대표이사장)는 KIMA WEEK 2016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박용수 이사(주)골든블루 회장)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하고 5개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사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올해 행사 기간은 오는 10월 5일~11일로 10월 5일(수) 그랜드 오프닝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로 시작을 알리게 된다. '해양레저 채용정보관 및 기업 홍보관'이 첫 선을 보이며 해양레저산업 및 기업의 다양한 채용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크루즈요트, 제트보트, 파워보트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직접 체험하는 '해양레저 체험페스티벌-만원의 행복'이 10월 초부터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에서 열려 해양레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 + 2016. 2. 16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영산대(부구욱 총장) 해양레저관광학과는 국내외 수륙양용보트 특허기술을 보유한 (주)성동마린(김중재 대표)과 산학협정 및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수륙양용보트를 인수. 지난 2월 16일,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영산아라호의 진수식을 가졌다. 이는 2015 부산국제보트쇼와 KIMA WEEK 기간을 통해 진행된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문철호 대표이사장)의 해양레저산업 강소기업 유치 전략과 (주)골든블루(박용수 회장)의 해양레저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부를 통해 마련됐다. 영산대학교는 국내기술로 제작된 수륙양용보트를 인수하고 보트안전검사와 운항테스트를 거쳐 영산아라호를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게 되었다. 영산아라호는 영산대학교가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유치한 해양스포츠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통해 얻은 1호 선박으로, 향후 해양레저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실습은 물론, 구급활동에 활용할 것이다.

### + 2016. 2. 19

2월 19일, 제1차 기획조정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가 열렸다. 이는 KIMA WEEK 2016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는 자리로 올해 행사의 전체 콘셉트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문화'라는 키워드로 뜻을 모으고 일반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나눴다. 국제컨퍼런스 연사섭외부터 개막식 진행방법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고민하였으며 KIMA WEEK라는 브랜드를 부산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제대로 홍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다. 기획조정단원과 분과위원들은 KIMA WEEK 2016의 콘셉트가 '문화'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해양레저의 대중화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 + 2016. 3. 7~4. 15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는 제4회 대한민국 국제해양레저워크를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2기 KIMA WEEK 2016 명예기자단을 모집한다. 2~5명의 팀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국내외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정기적인 카페 포스팅과 SNS채널 상시접속이 가능하여야 한다. 기자단에 선발된 이들은 KIMA WEEK 브랜드 가치를 대내외에 참신한 방법으로 홍보하며 신선하고 창의적인 KIMA WEEK 홍보 콘텐츠 제작과 확산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 간담회 참석과 지정과제에 따른 미션을 수행하게 되며 그 활동 결과를 UCC로 제작하게 된다. 우수 홍보팀에게는 시상 및 표창이 주어지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수료증 발급이 이뤄진다. 그 외에도 KIMA WEEK 행사 활동지원 및 우선 초청,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KIMA WEEK 사무국 인터넷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3월 7일부터 4월 15일까지 KIMA WEEK 홈페이지를 통해서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www.kimaweek.org](http://www.kimaweek.org)

# KIMA BRIEF

## 하이브리드 수륙양용보트 '영산아라호' 진수식



## 제1차 기획조정단 및 분과위원장 회의



## 제2기 KIMA WEEK 명예기자단 모집



#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엽니다

## Korea Marine Leisure Network



사단법인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_ 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8번길 69  
 KOREA MARINE LEISURE NETWORK\_ 69, Gampo-ro 8beon-gil, Suyeong-gu, Busan, Korea  
 T. +82 51 760 1130 F. +82 51 760 1134 E. komalnet@naver.com

# KIMA WEEK 2016 조직위원회



# Busan International BOAT SHOW

## 2016 부산 국제 보트쇼

2016. 3. 10<sup>Thu</sup> - 3. 13<sup>Sun</sup>  
BEXCO 제전시장 | 수영만 요트경기장

“ 국민소득 3만불 시대, ”  
마리나가 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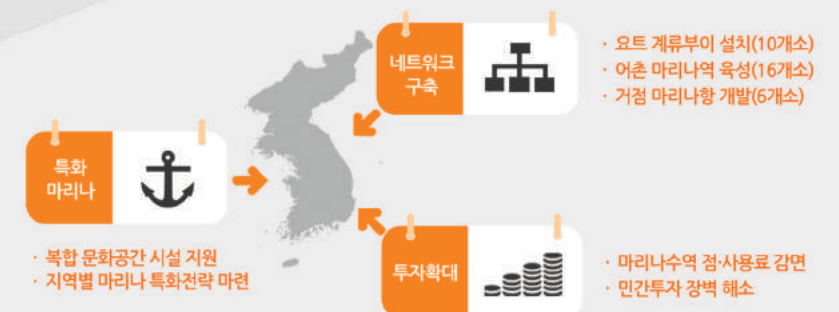
일자리  
12천개



경제효과  
1조원

레저선박  
3만척,  
요트면허  
25만명

### 1. 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2. 마리나·요트 관광 대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3. 국산 레저선박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GOLDEN BLUE

# 새 시대의 리더 '골든블루' 36.5도 100% 정통 위스키

부드러움을 표방한 양주들은 많으나  
100% 위스키로 블렌딩된 정통 저도 위스키는  
국내에선 유일하게 '오직' 골든블루뿐입니다.



**DRINK  
SMOOTHLY**

골든블루는 부드러운 음주문화를 선도합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